

파키스탄, 부토 전 총리 사망과 향후 정국 전망

1. 부토 전 총리 폭탄테러로 사망

- ☐ 파키스탄 인민당(Pakistan People's Party; PPP) 총재인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2007년 12월 27일 라왈핀디에서 총선 유세 후 자살 폭탄 테러 공격을 받고 사망하였음.
- ☐ 8년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지난 10월 18일에 귀국한 부토에 대한 암살위협은 귀국 당일 축하행렬에 대한 폭탄테러를 비롯하여 끊이지 않고 있었음.
 - 부토 전 총리는 1999년 부패스캔들에 휘말리면서 해외망명을 떠났다가 대테러 전쟁에서 중요한 동맹세력인 무샤라프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미국의 중재로 파키스탄 정계로 복귀하였음.
- ☐ 이번 부토 전 총리 암살사건으로 인하여 PPP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무샤라프 정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, 도처에서 대규모 반 무샤라프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약탈과 방화로 치안상태가 악화되고 있음.

2. 테러의 배후

- ☐ 이번 테러의 가장 유력한 배후로 지목을 받고 있는 곳은 알카에다, 탈레반 등 이슬람 무장세력으로 친서방·친미 성향을 띄고 있는 부토 전 총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해위협을 해온 바 있음.

- 부토 전 총리는 미국의 '테러와의 전쟁'을 공공연히 지지해왔고, 파키스탄 서부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산재해있으며 탈레반의 탄생지이자 이슬람 무장세력의 온상인 이슬람 종교학교(마드라사)를 개혁하겠다는 발언을 해왔음.

□ 한편, 테러 발생장소가 육군본부 및 정보기관 등이 소재한 라왈핀디라는 점에서 정부가 부토 전 총리의 경호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, 무샤라프 대통령의 테러 개입 가능성에 대한 추측도 나오고 있음.

- 그러나 무샤라프 대통령은 부토 전 총리와 권력분점 협상을 통해, 부토 전 총리에게 금년 1월 총선에 출마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, 자신은 겸직하고 있는 육군참모총장직에서 사임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바 있으므로 이번 테러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.

□ 이밖에 부토 전 총리의 남편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는 부토의 3번째 총리 취임을 두려워하는 국내정보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번 테러의 배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음.

3. 사태 추이

□ PPP는 12월 30일 부토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빌라왈을 의장으로 임명하였으나, 옥스퍼드 신입생인 19세의 빌라왈은 정치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공동의장으로 임명된 부토 전 총리의 남편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.

- 그러나 자르다리는 부토 전 총리 집권시절 뇌물수수 등 각종 부패 혐의에 자주 연루되었을 뿐만 아니라, 부토 전 총리의 아버지인 줄피카르 부토가 1967년 창당한 이후 부토 가문이 이끌어오던 PPP를 사위가 맡게 됨에 따라 부토 집안 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.

□ 한편, 1월 2일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부토 전 총리 암살에서 비롯된 정국·사회 혼란으로 인하여 1월 8일로 예정되었던 총선을 2월 18일로 6주 연기하였음.

- 이에 PPP와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무슬림리그 (Pakistan Muslim League-Nawaz; PML-N)는 총선 연기를 비판하면서도 부토 전 총리 암살에 따른 동정표와 무샤라프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총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.

4. 향후 전망

□ 부토 전 총리 암살에 따른 반 무샤라프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, 무샤라프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선거를 조작하거나 치안 불안으로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할 가능성이 있음.

□ 무샤라프 대통령을 ‘테러와의 전쟁’의 동반자로 삼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던 미국은 독재권력 지지라는 비판과 무샤라프의 정권 장악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샤라프와 부토의 권력분점을 통한 정국 안정을 시도했으나, 부토 전 총리 암살로 인해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음.

- 미국은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부토 전 총리를 대신할 만한 인물을 찾기가 어렵고, 파키스탄 정국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추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.

□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파키스탄의 정정 불안으로 핵무기의 관리가 소홀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, 핵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관리하고 있는 파키스탄 군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.

- 그러나 향후 소요사태 악화 등으로 무샤라프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경우, 파키스탄 군부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